

세필 붓으로 그린 무제의 추상화

January, 2016 | 김세미기자

page 1 of 2

Culture Gallery



김홍주 개인전 | 국제갤러리서 1월 24일까지 전시

세필붓으로 그린 무제의 추상화

"나의 사고가 그림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림들이 내 사고를 결정해간다. 창조라는 가면 쓰고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신화는 정치로써 부침할 뿐이다"(김홍주 작가노트 1990년 6월)

김세미 기자

세필붓으로 그린 세필 추상화로 잘 알려진 김홍주 작가가 개인전을 갖는다. 5년 만에 신작 13점을 국제갤러리에서 1월 24일까지 전시한다. 김홍주는 한국 현대미술이 획일적으로 모더니즘 화풍을 따르던 1970년대부터 당대 유행하던 사조들을 벗어나 다양한 기법과 독자적인 방식으로 대안적 미학을 모색해온 작가다.

김홍주는 1973년 평론,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실험예술을 탐구하던 몇몇의 S.T(Space Time)그룹 전시와 '양태광당전'에 참여하며 당시 화단에 널리 퍼져 있던 단색 평면 추상에 반하는 극사실적

회화 작품을 선보였다. 이는 김홍주가 시도한 회화적 실험의 일환으로, 당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독립적인 행보를 추구한 그의 기질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이후 작품 전반에 걸쳐진 회화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태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김홍주는 그림, 곧 그리기에 대한 한계와 욕망을 다루어왔다. 그의 작업방식은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그리기'라는 행위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며 발전하였다. 이 때문에 특정한 소재와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가를 살펴보기 어렵지만 몇몇 계기가



되는 작품 소재와 표현의 전환을 살펴보자면, 1970년대 후반 오 브제를 차용하여 거울, 창문, 화장경대, 자동차 문에 이르는 다양한 실제 사물 위에 인물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려 넣는 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익숙한 사물의 외형에서 허구적 상상을 야기시킨다. 김홍주는 사실적인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비취지는 것을 공존시키는 시도를 통해 사물과 환경의 재현의 문제, 그리고 이를 그리는 방식에 대한 한계를 탐구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작업한 특유의 세필 터치들로 증첩

되어 묘사된 풍경 시리즈에서는 원근과 명암이 배제되고, 풍경화에서 도려낸 듯한 발고랑 혹은 흙덩이와 같이 사실적 이미지에 기반한 대상들이 증식, 반복, 확장된 전개방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1990년대 초부터 진행했던 한문의 초서체와 배설물의 이미지를 조합한 서예시리즈,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꽃이나 나뭇잎을 크게 확대해 그린 속칭 '꽃 그림' 시리즈, 그리고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으로 구체적인 형상이 이전보다 크게 약화된 추상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은 입체감, 질감, 명암, 깊이가 결핍되어 풍경이나 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불명의 형상으로 남겨진 결과를 지닌다. 작가는 이를 '묘사를 포기한 세필화'라고 칭한 바 있는데, 풍경, 잎, 꽃, 지형 등 일상적 소재에 따른 이미지들로부터 맥락과 배경, 구체적인 세부묘사를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인내를 요하고 체력을 고갈시킬 정도의 장시간의 '그리기' 행위를 통해 반복적인 세필 붓질로 표현된 회화의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김원방 평론가는 김홍주 작품에 대해 "꽃잎의 섬유질, 나뭇잎의 엽맥 같은 부분 등 형상과 유기적 연결을 상실한 세부들은 표현하자면 화면상의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조각들일 뿐이며, 전체적 형상 자체는 사실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다"고 말했다. 이번 신작들은 구체적인 형상이 더욱 희미해져 일부 작업들은 마치 벽지의 무늬와도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지만 그 기법은 여전히 무수한 붓질과 노동으로 축적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엄청난 노력으로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파스텔 톤의 편안함 이면에 격렬한 붓질의 축적과 사유를 담고 있는 김홍주의 회화에 대한 도전을 엿볼 수 있다. ■

화가 김홍주

1945년 충북 회인에서 태어난 김홍주는 청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에콜드서울', '영대광당전'에 참가해 일찍이 미술계 일각의 주목을 받았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실험적인 예술을 탐구한 S.T.그룹 활동에 참여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화풍을 벗어나 새로운 회화를 시도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극사실주의 작업에 매진해 젊은 작가들의 전시인 '형상 78'전에 참가했고, 프랑스의 카뉴 국제회화제 특별상 수상 및 '제5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최우수 프론티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풍경, 꽃, 문자 등의 세필 회화 작품으로 그만의 미학적 언어를 추구해왔으며 1997년 금호미술관 개인전을 계기로 평단과 화단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목원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997년 금호미술관, 2005년 로댕갤러리, 2009년 이코 미술관 전시가 있으며, 1999년, 2002년, 2010년 국제갤러리에서 3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그 외에도 해외 소재의 대표적인 기관 전시로는 1985년 일본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1993년 미국 뉴욕 퀸즈 미술관, 2003년 프랑스 릴 현대 미술관, 2008년 싱가포르 미술관 등이 있다.